



요즘 학생들이 기초과학과 공학을 기피하고 의대를 선호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을 집중 육성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 자리는 늘 과학자가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장래 희망 조사에서는 연예인이 25%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 과학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이공계 졸업자들조차 상당수가 기술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의 일을 찾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우수인력이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의과대로 편입하는 현상도 일반화되고 있다.

### 이공계 상위권 수학성적 급락

서울대가 올해 이공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성취도 측정시험 결과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작년보다 훨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수학성적이 크게 떨어진 것은 최근 최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아예 기피하거나 의대나 약대로 진

학하는데 따른 현상이라며 우수한 학생이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이공계에 대한 상대적 소외가 기피원인

이공계 기피현상은 현재의 청소년층이 수학이나 과학분야와 같은 어려운 학문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와 보수, 불투명한 미래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도 대학의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부족이 맞물리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 이공계 사기 진작 시급



이광호\_ KBS 해설위원

이 같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대학 등이 위기의식을 갖고 이공계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체계적으로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확대와 처우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장학금, 연구비, 취업 등 적극 지원

과학기술부는 미래 유망 신기술과 기초과학 분야의 창의적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 해외 석·박사 학위 취득과 해외 공동 연구, 박사 후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이공계 우수인력 650명을 선정해 모두 360억원을 장학금과 연구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또 올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이공계 석·박사 천4백여명의 연구비와 인건비로 130억원의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이공계 출신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오는 2007년까지 이공계 석·박사의 일자리 만개 이상이 새로 만들어진 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이공계 실업난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해 이공계 대졸 실업자 5천7백명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공계 살리기의 하나로 전문연구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공계 대학장들은 전문연구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선발규모도 현재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병무청이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지정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또는 출연연

구조, 국·공립 연구소에서 병역의무 대신 복무하는 제도이다.

## 사기 진작 위한 장기대책 필요

정부가 이처럼 이공계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병역특례 확대와 장학금 지급, 일반기업 채용지원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대책보다 이공계 기피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내 해소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 청소년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이공계 출신의 기술자와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술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에서도 이공계의 정원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특화된 이공계 교육을 통해 학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인을 양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뿐 아니라 기업체에도 최고수준의 연구소가 설립되고 연구원들에게 최고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업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비결이다.

## 기술인 존경받는 사회풍토 만들어야

기술자 1명이 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웅변하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과학기술력은 하루아침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절 없는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공계의 위기는 사회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위기이며 미래의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 인식 속에 기술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경쟁력 있고 힘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Z]